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 교육비 지출액과 지출구조*

Householder's Education Level and Education Expenditure for Children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학 전공

교 수 김 경 자**

The Dep't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Prof. : Kim, Kyung-J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er's education level and the education expenditure for children.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of the 2005 National Statistical Survey were used to examine the hypothesis. For data analysis, ANOVA and regression method were appli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Households in Seoul spent 533,000 won for child education per month on the average, and 64% of the expenditure was for private education. Households whose householder's education level was high spent more expenditures on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for children than the households whose householder's education level was low. When the household income level was controlled, householder's education level affected only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주요어(Key Words) : 자녀교육(education for children), 교육비 지출(education expenditure)

I. 서론

우리나라 사회에서 학력과 학벌은 전반적인 삶의 기회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존심을 나타내는 일종의 지표로 간주된다. 이러한 문화에서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교육시키면 자녀가 더 나은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갖게 만들 수 있고 계층상승을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 때 자녀를 교육시킴으로써 부모가 기대하는 보상은 자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취업기회 상승이나 임금상승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 획득과 인맥 형성 등으로 다양하다. 1980년대

후반까지 대출자는 고졸자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임금을 받았지만 2000년 이후 그 차이는 1.5배 정도로 점차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비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보상이 임금 상승 뿐만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한 증거이다.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지출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OECD(2004)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총가계지출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지출비중이 2001년 8.2%로서 OECD 회원국가 중 가장 높다. 2002년 이후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바뀌어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물론 전반적인 교육비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총교육비 중 사교육비의 비율과 공교육비 중 정부보조가 아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다. 2003년 이후에는 총사교육비가 총공교육비 규모를 초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에

* 본 연구는 2006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주 저 자 : 김경자 (E-mail : kimkj@catholic.ac.kr)

대한 지출도 점점 일찍 시작되어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전 일 때부터 본격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승신, 2003).

자녀 교육은 자녀가 독립하기 이전에 부모에 의해 투자결정이 이루어지므로 부모의 능력과 교육에 대한 태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자녀교육비에 대한 지출은 기본적으로 가계소득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이 외에도 교육에 대한 기대수익률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Schultz(1961)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의 기대수익률은 자녀의 능력, 자녀수,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자녀의 능력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사회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선호되는 성별(주로 남자)일수록 부모가 생각하는 교육의 기대수익률은 높아진다. 또한 몇몇 연구들(김홍균·문용호, 2006; Blake, 1989)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소들도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의 기대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수익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홍균과 문용호(2006)는 소득이나 학력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 대한 투자를 늘려 자녀의 능력을 개발시키기도 하지만 자신의 기존 지위, 즉 사회적 인맥이나 정보망 등을 이용한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어 자녀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적자본론의 입장에 따르면 자녀교육에 대한 지출은 소비와 투자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따라서 자녀교육에 대한 지출은 대부분의 유자녀 가계에서 긴요도가 매우 높은 소비항목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사회에서 출세하거나 성공하는데 학벌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며(강지연, 2003),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있어 자녀 개인의 능력과 노력 외에 부모의 지원과 후광이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에 더 집착하는 성향을 보인다(서혜경, 2003). 실제로 서혜경(2003)의 연구는 부모의 소득과 학력, 직업지위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자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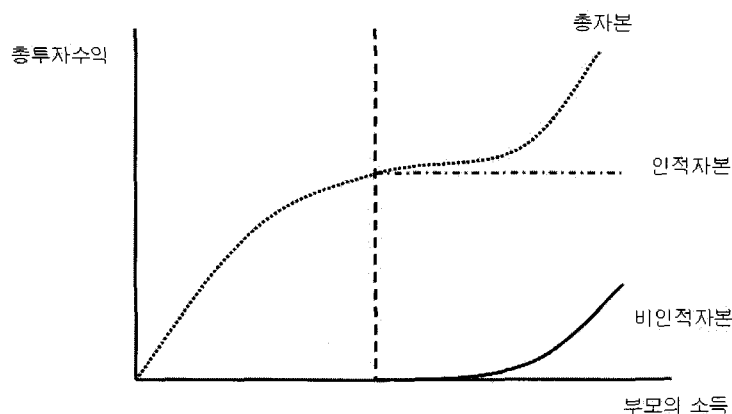
학업성취수준과 상당히 높은 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학력수준은 부모의 직업과 소득을 상당부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 투자의 가능성을 높여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소득에 비해 과도한 교육투자로 인해 우리나라 많은 가계가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생활에 필요한 다른 항목의 소비지출을 줄이고 나아가 소비생활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이성림, 2005; 정영숙, 1999).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지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자녀교육비 지출의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진 가계소득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부모의 교육수준(특히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수준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부모교육수준에 따라 그 교육비 지출의 하위구조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가계소득 수준이 같다면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교육투자에 더 적극적인가?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는 공교육과 사교육 중 어떤 유형에 더 많이 투자하고 어떤 사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는가?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교육의 기대수익에 대한 부모세대의 판단을 추론할 수 있게 해주고 부모-자녀 세대간 학력 전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 문헌고찰

1. 인적자본이론과 자녀교육 투자

Becker(1972)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은 자녀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종의 투자이다.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로 향상되는 인적자본의 수익률(rate of return)은 자녀의 성, 인종, 능력, 연령, 사회적



<그림 1> 자녀의 인적자본과 비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I

배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자녀의 인적자본은 신용시장에서 확실한 담보(collateral)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 왜냐하면 아직 증명되지 않은 능력이기 때문에 -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는 대개 부모들의 몫이다. Becker는 자녀의 비인적자본 영역(nonhuman capital)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일정수준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일정하고 또 인적자본 투자 수익률이 비인적자본 영역에 대한 투자수익률보다 크다고 가정함으로써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부모들이 자녀의 인적자본 투자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반면 인적자본에 투자하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소득이 있는 부모인 경우에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수익률(한계수익률)이 비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수익률과 같아지는 지점(I)에서부터 부모는 자녀의 비인적자본 영역에도 투자를 시작한다.

자녀의 인적자본을 위한 투자(교육투자)에 부모의 소득을 제외한 교육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인적자본 이론에 근거한 Mincer의 임금함수에서 찾을 수 있다. Mincer(1958)에 의하면 노동시장에서의 임금(Y)은 노동자의 인적자본 수준, 즉 교육수준(X₁)과 기타 능력(X₂)에 의해 결정된다. 인적자본은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 노동자의 노동가치를 높이고 이것이 투자비용을 회수하고도 남을만큼 높은 임금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ln Y = a + b_1X_1 + b_2X_2 + e$$

이 때 교육수준 외에 자녀의 기타 능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분(inherited part: P) 과 물려받지 않은 부분(uninherited part: A)으로 이루어진다.

$$X_2 = rP + A$$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분의 능력은 부모의 학력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녀의 임금은 자녀의 교육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그리고 부모와는 독립적인, 자녀의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ln Y = a + b_1X_1 + b_2(rP + A) + e$$

따라서 자녀의 임금은 자신의 교육수준과 부모의 교육수준, 그리고 기타 여건에 의해 결정되므로 학력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가 자녀의 임금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고 자녀교육에 더 투자하게 된다.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를 가진 자녀는 능력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부모의 직업과 인맥, 정보망 등을 통한 '연고지 등용(nepotism)'으로 기타 부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도 임금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김홍균·문용호, 2006).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진 실증적인 연구들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자녀의 교육투자 수익률은 가구주의 학력이 임금함수에 포함된 경우 포함되지 않았을 때에 비해 미국과 브라질은 31.2%, 미국 28.3%, 대만과 파나마는 대략 25%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녀의 교육투자 수익 중 상당 부분이 가구주의 학력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의미한다(김홍균·문용호, 2006)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도 김진영과 김홍균(2001), 김홍균과 문용호(2006)가 한국노동패널 자료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임금함수에 포함된 경우 자녀의 교육투자 수익률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부인의 교육수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제시된 가설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김홍균과 문용호의 모형은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에서 연속변수인 학력수준을 범주변수 그대로 사용하여(무학=0, 초등학교졸업=1, 중학교 졸업=3 식으로) 계수 해석상 문제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2. 교육비 지출의 영향요인

우리나라에서의 과도한 교육비 지출은 근본적으로 유교에 기반한 승문주의, 일제시대 실증적으로 고학력자들이 특권을 누리게 되면서 발판이 마련된 학벌주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학력은 일종의 능력의 지표이므로 어느 사회에서나 고학력자가 우대받는 풍토가 형성되게 마련이나 한국사회는 능력 이상으로 학력의 가치가 인정되는 상징적 학력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김부태, 1997). 우리 나라 사회에는 학력에 따라 취업과 승진, 임금이 달라지고 그것이 나아가 그 사람이 속할 계층을 결정한다는 믿음이 보편화되어 있다.

학력과 자녀 교육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몇몇 연구들(강지연, 2002; 강인원·전성일, 2003; 주문자·황덕순, 2005)은 자녀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모들의 주관적인 의식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강지연(2003)은 서울 강남지역 거주 학부모를 대상으로 면접과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자녀교육비 지출에 대한 그들의 의식을 파악하였다. 응답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출세하거나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학벌(58%)과 부모의 경제적 뒷받침(33%)이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자녀의 학벌을 높이기 위한 부모의 경제적 뒷받침(교육투자) 열기에 상응하는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학벌이 좋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인맥을 형성하기 어려워' 승진이나 결혼에서도 문제를 겪게 되므로 교육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강인원과 전성일(2003)은 중고생 학부모 1,417명을 조사

하여 그들의 학벌주의, 공교육과 사교육 만족도, 사교육 신뢰도 등 주관적인 요소들이 사교육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학벌주의란 학벌이 임금이나 승진, 결혼, 취업과 관련이 있을거라고 믿는 경향을 말하는데 조사 결과 학벌주의 점수가 높을수록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이는 사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사교육 구매의도가 높았다. 그러나 학벌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특성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계소득이나 부모의 학력 등 어떤 요인이 학벌주의와 관련이 있는지는 밝혀내지 못하였다.

주문자와 황덕순(2005)은 교육에 대한 비인지적 요인(주변의 권유나 광고 등)이 교육에 대한 태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여기서 교육에 대한 태도는 감정적 태도(교육에 대한 선호), 인지적 태도(교육의 유익성에 대한 평가), 행동적 태도(사교육 구매의도)의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 509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상대적으로 저관여하는 상황에서는 비인지적 요인이 부모의 감정적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고관여 상황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부모들이 자녀교육 문제를 중요하다고 지각하고 개인적인 관련성을 깊게 지각하는 상황에서는 주변적인 단서만으로 인해 사교육에 대한 태도를 호의적으로 쉽게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적 계층과 관계없이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최소한 대학교육을 받기를 기대한다. 임연기와 김영화(1997)의 연구에 의하면 이미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1997년에도 학부모의 88.4%가 자녀가 최소한 대학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열망의 강도는 높아도 각자가 처한 객관적인 현실에 따라 자녀에 대한 지원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가령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출은 기본적으로 가계소득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몇몇 연구(문숙재 등, 1996; 양세경·이윤금, 1997)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교수준(초, 중 고, 대학)이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지출액이 유사한 공교육비(납입금) 외에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 그 결과들은 모두 가계소득이 사교육비 지출의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김시월, 1999; 김지경, 2004; 박미희·여정성, 2000; 이성림, 2002, 2006; 이승신, 2003; 정영숙, 1996). 이 연구들은 총가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 또는 사교육비 지출액 자체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경우에도 소득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교육이 일종의 필수재라면 사교육은 상대적으로 선택재의 성격이 강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가계소득 외에도 위 연구들은 일관적이지는 않으나 부모의

학력이나 거주지역, 부모의 직업, 가계자산, 주거소유 여부, 어머니의 취업여부, 자녀수, 자녀의 성별, 가계 취업원수 등 자녀의 교육비지출 또는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가령 박미희와 여정성(2000), 이승신(2002)의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성림(2005)의 연구에서는 주거소유 여부와 주택유형에 따라 사교육 부담률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 성별에 따라서는 딸인 경우 아들보다 사교육 이용률이 더 높고 사교육 액수도 높다는 연구(김경자, 2005; 김지경, 2004; 박미희·여정성, 2000; 이미정, 1998)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교육부, 2001)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자녀교육비 지출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2005년 가계조사 자료이다. 가계조사는 표본가계들이 매달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는데 공교육비와 다양한 영역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전국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2005년 가계조사자료는 모두 82,642 사례로 이루어져 있으나 부모의 교육수준 외에 자녀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가능한 한 통제하기 위하여 서울지역 근로자 가계만을 추출하였다. 또한 조사기간 중 한 달 동안 한 번이라도 교육비 지출을 한 적이 있는 가계를 선택하기 위해 자녀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는 가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비 지출이 가구주 본인이나 배우자 교육에 지출되는 것과 자녀에게 지출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 가구주나 배우자가 학생신분인 경우는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가구주의 성별과 가족유형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부부와 미혼자녀가 있는 2세대 부부가계만을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이 된 사례수는 원자료의 6.2%에 해당하는 5,090사례이다.

가계조사자료의 교육비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그리고 문구비로 구분된다. 공교육비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의 학교별 납입금과 교재비를 포함한다.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실제로 국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납입금이 없다. 사교육비는 보충교육비로 표시되며 입시 및 보습 학원비와 피아노, 미술, 태권도 등 예체능학원비, 기타 학원비와 해외연수비, 개인교습비 독서실 사용료 등을 포함한다.

2. 자료 분석방법

교육비지출을 분석하기 위해 전체 교육비, 사교육비, 개인 교습비, 교육비 비율(소비지출 중 교육비 지출의 비율), 사교육 비율(교육비 중 사교육비의 비율), 개인교습비율(사교육비 중 개인교습비의 비율) 등 여섯 개 지표를 구성하고 지표값을 우선 파악하였다. 다음에는 교육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가계소득 외에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라 위 여섯 개 지표의 평균값이 다른지를 비교하고 소득과 가구주 학력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가계소득과 가구주 교육수준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경우 그래프를 그려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교육비 지출액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계소득과 취업원수, 자녀수, 배우자 교육수준 등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가계소득은 분산분석의 경우 연간소득 분포를 약 1/3씩 3개 집단으로 나누어 2,800만원 이하를 하집단, 2,800만원 초과 4,200만원 이하를 중집단, 그 이상을 상집단으로 나누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분산분석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의 네 집단으로 나누었다. 회귀분석에 포함시킬 때는 가계소득은 교육비 지출 단위인 월간 단위에 맞추기 위해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여 만원 단위로, 부모교육수준은 연속변수인 각각의 공교육연수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이 된 사례의 특성을 보면 <표 1>과 같다. 가구주의 연령은 30대와 40대인 경우가 88%로 대다수이고 평균 연령은 43세이다.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64%, 1명인 경우가 25%이다. 가구주 학력은 대졸이 46%로 가장 많았으나 배우자 학력은 고졸이 47%로 가장 많았다. 가계소득은 평균이 3,820만원 정도였고 가구주 직업은 숙련공/기능공, 기술직/준전문직, 전문직 순으로 많다.

2. 교육비 지출의 하위구조

표본가계의 교육비 지출구조는 <표 2>와 같다. 총교육비 지출의 평균값은 53만 3천원으로 이는 총 가계지출의 22.7%에 해당한다. 분석대상인 표본가계가 유치원생 이상의 학생을 가진 가계인 까닭에 교육비의 지출이 총가계지출의 1/5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는 평균 34만 3,600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개인교습비로는 19만 1,400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사교육비는 교육비의 64%를 차지하였고 개인교습비는 사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대학교, 유치원, 전문대학, 대학원 순으로 납입금의 액수가 많았는데 유치원 납입금이 대학 납입금의 60%에 달하여 유치원 납입금의 부담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해당 납입금을 지출하는 가계의 비율은 유치원이 가장 높아 14%의 가계가 유치원 납입금을 지출하였고 그 다음은

<표 1> 표본의 특성

(N=5,090)

변 수	구 분	빈도(%)	변 수	구 분	빈도(%)
가구주 연령	20대	42(0.8)	자녀수	1명	1,247(24.5)
	30대	1,710(33.6)		2명	3,264(64.1)
	40대	2,751(54.0)		3명	492(9.7)
	50대 이상	587(11.5)		4명 이상	87(1.7)
가구주 학력	중졸 이하	543(10.7)	배우자 학력	중졸 이하	627(12.3)
	고졸	1,877(36.9)		고졸	2,399(47.1)
	전문대졸	346(6.8)		전문대졸	451(8.9)
	대졸 이상	2,324(45.7)		대졸이상	1,613(31.7)
가계소득 (연간, 단위: 만원)	2,000만원 이하	662(13.0)	가구주 직업	전문직	846(16.6)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1,262(24.8)		기술직, 준전문직	1,028(20.2)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170(23.0)		사무직	587(11.5)
	4,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85(17.4)		판매/서비스직	844(16.6)
	5,000만원 초과	1,111(21.8)		숙련공/기능공	1,340(26.3)
계		5,090(100.0)	계		5,090(100.0)

<표 2> 서울지역 근로자가계의 교육비 비목별 지출액과 지출가구 비율

항목	액수(원)	%	항목	액수(원)	%		
공교육비	유치원	41,981.0	14.4	보충교육비	입시/보습학원비	169,373.5	45.2
	초등학교	-	-		예체능학원비	37,985.4	29.4
	중학교	-	-		기타학원비	18,318.2	15.5
	고등학교	26,401.3	7.2		해외연수비	5,210.2	0.001
	전문대학	15,311.2	2.7		개인교습비	79,313.8	40.0
	대학	69,662.3	4.3		독서실, 기타	33,490.4	36.6
	대학원	5,459.1	0.5				
	평생교육원	1,482.2	0.002				
	교재비	16,261.1	32.0		문구류	7,221.0	60.4
계				533,218.6			

<표 3>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분산분석

(단위: 원, %)

독립변수	범주	교육비	소비지출중 교육비비율	사교육비	교육비중 사교육비비율	개인교습비	사교육비중 개인교습비비율
가계 소득	상(1,655)	728,248.7	18.9	513,434.1	70.5	147,791.1	19.9
	중(1,848)	513,063.3	22.4	525,273.8	65.2	58,683.3	14.5
	하(1,577)	350,924.2	27.5	186,052.4	54.4	31,191.8	11.3
	F값	32.2*	3.4*	58.4*	10.4*	29.6*	.3
가구주 학력	중졸 이하(543)	489,909.2	27.9	201,696.0	49.2	30,212.0	17.6
	고졸(1,877)	483,328.9	25.0	296,809.0	63.7	43,520.6	15.7
	전문대졸(346)	431,760.4	20.2	281,703.4	64.3	93,956.0	33.3
	대졸이상(2,324)	598,736.9	19.7	423,962.7	66.7	117,515.2	30.2
	F값	1.4	13.1*	10.8*	27.3*	17.8*	34.6*
가계소득*가구주 학력		4.8*	2.1*	14.0*	11.1*	6.6*	8.5*
평균		533,218.6	22.7	343,631.5	63.6	79,313.8	24.0

*:p<.05

고등학교, 대학 순으로 높았다. 사교육 영역에서는 입시 및 보습학원비를 지불하는 가계가 가장 많아 45%였고 개인교습비를 지출하는 가계도 40%로 비교적 높았다. 입시/보습학원비는 가계당 평균 17만원 정도, 개인교습비로는 가계당 평균 7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다. 독서실 비용이나 예체능 학원비를 지불하는 가계도 29%나 되었으나 그 지출액은 입시/보습학원비나 개인교습비보다 낮았다.

3. 가구주 교육수준과 교육비 지출

가계소득과 가구주 교육수준별 교육비 지출구조의 차이를 먼저 분산분석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교육비나 사교육비, 개인교습비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상집단의 경우 하집단에 비해 교육비 지출은 2배, 사교육비 지출은 3배, 개인교습비의 경우 거의 5배에 가깝게 지출을 하고 있다. 또한 소비지출 중 교육비의 비율은 상집단보다 하집단에서 더 높았으나 교육비 중 사교육비의 비율, 사교육비 중 개인교습비의 비

율은 모두 상집단으로 갈수록 더 높았다.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6개 교육비 지출지표 모두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교육수준과 교육비 지출 지표는 모두 정의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가구주가 대졸인 경우 교육비와 사교육비, 개인교습비 지출액이 가장 높았으나 교육비는 전문대졸 집단에 비해 중졸 이하와 고졸 집단에서, 사교육비는 중졸 이하 집단보다 고졸과 전문대졸 집단에서, 개인교습비는 중졸과 고졸집단보다 전문대졸 집단에서 그 다음으로 높았다. 교육비 지출액과 달리 전체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지출 비율은 가구주가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보다 고졸 이하인 집단에서 더 높았다. 반면 교육비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사교육비 비율은 중졸 이하 집단을 제외한 다른 3집단에서 모두 60% 이상으로 비슷하게 높았고 사교육비 중 개인교습비 비율은 중졸 이하와 고졸 집단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의 집단에서 거의 두 배 가량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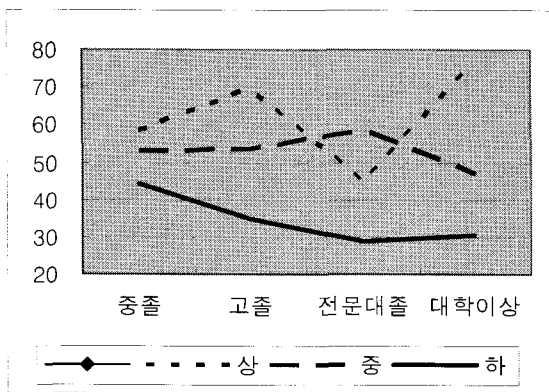
분산분석 결과 모든 교육비 지출 지표에서 가계소득과 가구주 교육수준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표 4> 가계소득수준별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교육비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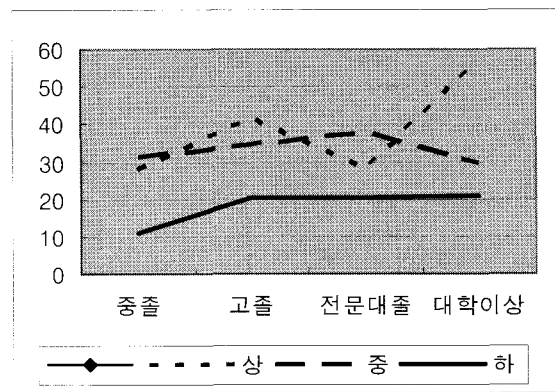
(단위: 만원, %)

소득	학력	교육비				사교육비				개인교습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이상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이상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이상
하		44.3	34.9	28.7	30.4	10.9	20.1	20.2	20.8	11.7	24.4	74.6	40.9
중		53.1	53.8	58.6	47.2	31.4	34.8	37.8	29.6	24.3	47.7	11.4	71.9
상		58.4	69.8	44.8	76.7	28.1	41.6	27.8	56.9	11.2	83.6	96.2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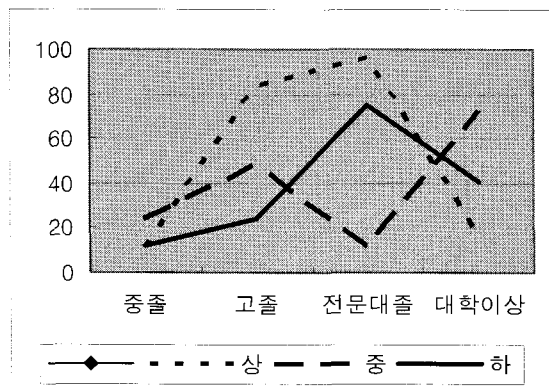
소득	학력	교육비/소비지출				사교육비/교육비				개인교습비/사교육비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이상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이상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이상
하		33.5	28.2	23.9	22.6	42.9	57.7	72.3	49.8	7.6	8.7	29.3	12.2
중		23.7	24.1	23.7	20.0	58.6	68.3	64.0	63.9	10.5	11.4	19.2	18.2
상		15.1	19.5	11.9	18.8	49.4	67.5	54.7	73.7	11.9	11.8	15.4	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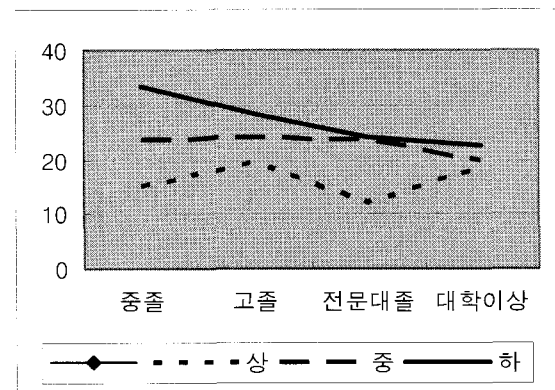
<그림 2> 가구주교육수준별 교육비지출액(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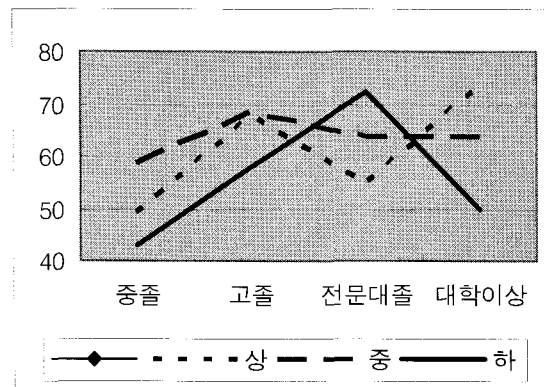
<그림 3> 가구주교육수준별 사교육비지출액(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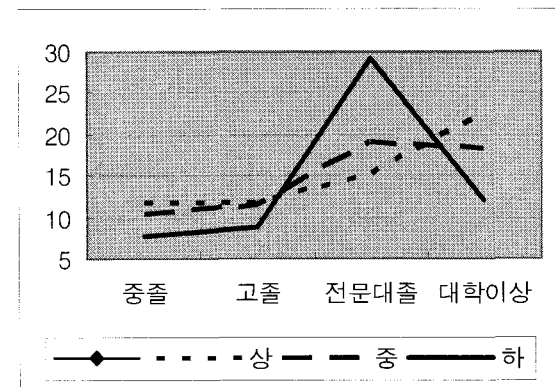
<그림 4> 가구주교육수준별 개인교습비 지출액(만원)



<그림 5> 가구주교육수준별 개인교습비 지출비율(%)



<그림 6> 가구주교육수준별 사교육비 지출비율(%)



<그림 7> 가구주교육수준별 개인교습비 지출비율(%)

그래프로 그려 각 가계소득수준별로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교육비 지출패턴을 비교해 보았다. <표 4>와 <그림 2>~<그림 7>에서 보듯이 가구주 교육수준과 교육비 지출 간의 관계는 가계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교육비 지출액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득이 상인 집단의 지출액이 높으나 가구주가 전문대졸인 경우에는 소득이 중인 집단인 가계의 지출액보다 적다. 이는 사교육비 지출액 패턴에서도 비슷하다. 그러나 학원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액인 개인교습비의 경우 소득이 하집단인 경우에도 가구주가 전문대졸인 가계의 지출액이 월등하게 높아진다. 특히 소득이 상집단인 경우 가구주가 고졸이거나 전문대졸인 가계는 월평균 80만원 이상을 개인교습비에 지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가구주가 대졸인 경우에는 교육비와 사교육비 지출은 높으나 상대적으로 개인교습비에는 덜 지출하고 있다.

가구주가 전문대졸인 가계는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지출액이 가장 낮다. 그러나 소득이 가장 낮은 하집단에서는 전문대졸 가구주 가계가 교육비 중에서도 사교육비, 사교육비 중에서도 개인교습비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교육비 중 개인교습비 비율은 가구주가 대졸 이상이면 소득이 하집단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구주가 대졸 이상이면 소득이 상인 집단은 전체 교육비 지출액의 72%를 사교육에 투자하고 있어 가장 사교육 지향적인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는 교육비 지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몇 개의 추가변수를 통제하고도 가구주 교육수준이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교육비 지출액, 사교육비 지출액, 개인교습비 지출액, 가계소비지출 중 교육비 지출비율, 교육비중 사교육비 비율, 사교육비 중 개인교습비 비율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 월평균 가계소득(단위: 만원) 외에 자녀수(단위: 명), 취업원수(단위: 명), 그리고 배우자 교육수준(단위: 년)을 추가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6개 종속변수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가계소득과 자녀수로 나타났다. 교육비 비율을 제외하고는 소득

이 높을수록 교육비와 사교육비, 개인교습비, 사교육비 비율, 개인교습비 비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교육비와 사교육비, 개인교습비가 증가하고 교육비 비율과 사교육비 비율도 높았으나 개인교습비 비율은 감소하였다. 취업원수는 교육비 지출 비율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육비 지출 관련 변수와 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는 소득이 동일한 부부가계에서는 맞벌이 부모인 경우보다 홀벌이 가계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이 더 많고 개인교습비 등 사교육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가구주 교육수준은 교육비 지출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사교육비 및 사교육비 비율, 그리고 개인교습비 비율과만 정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소득과 자녀수 등이 동일한 경우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더 지출하고 사교육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지출되는 개인교습에 더 지출함을 알 수 있다. 가구주 교육수준별로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고교진학률과 대학진학률이 실질적으로 100%에 가까운 것이 한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즉 가구주 교육수준과 상관없이 고등교육 기관 진학률이 비슷하므로 납입금 등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좋은 고등학교나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한 사교육비 지출에서만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가구주 교육수준이 동일한 경우 배우자 교육수준은 개인교습비 지출액과 개인교습비 지출비율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V. 요약 및 결론

가구주 교육수준이 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인 서울특별시 소재 근로자 가계의 5090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우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55만 3천원으로 총 가계소비지출액의 22.7%에 해당한다. 교육비 지출의 64%는 사교육비에 해당하는 지출이며 사교육비의 24%는 개인교습비이다. 또한 사교육비에 지출하고 있

<표 5> 교육비 지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 수	가구주 교육수준	배우자 교육수준	가계소득	취업원수	자녀수	R ²
교육비	-3,003.1	-3,785.0	.10*	-37726.1*	84,565.0*	6.9
(교육비/소비지출)	-.001	-.001	1.0((E-5)*	-.001	.02*	5.4
사교육비	4328.4*	1651.9	.08*	-40,510.9*	99,322.3*	15.4
(사교육비/교육비)	.01*	-.001	1.0(E-6)*	-.03*	.11*	6.6
개인교습비	917.0	5,384.4*	.03*	-41,083*	17,666.5*	10.3
(개인교습비/사교육비)	.01*	.01*	2.0(E-8)*	-.06*	-.02*	7.8

*p<.05

는 가계는 45%, 예체능학원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계는 40%, 개인교습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계는 40%로 나타났다.

가구주 학력수준에 따른 교육비 지출구조를 분석한 결과 가구주 교육수준이 낮은 가계보다 높은 가계에서 교육비 지출과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았으나 총가계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았다. 전반적으로 가구주가 대졸인 경우 교육비와 사교육비, 개인교습비 지출액이 가장 높았는데 특히 개인교습비 지출은 가구주가 중졸 이하인 집단에 비해 거의 4배 가량 많았다. 교육비는 전문대졸 집단에 비해 중졸 이하와 고졸 집단에서, 사교육비는 중졸 이하 집단보다 고졸과 전문대졸 집단에서, 개인교습비는 중졸과 고졸집단보다 전문대졸 집단에서 대졸 집단 다음으로 높았다. 교육비 지출액과 달리 전체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지출 비율은 가구주가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보다 고졸 이하인 집단에서 더 높았다. 반면 사교육비 비율은 중졸 이하 집단을 제외한 다른 3집단에서 모두 60% 이상으로 비슷하게 높았고 개인교습비 비율은 중졸 이하와 고졸 집단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의 집단에서 거의 두 배 가량 더 높았다.

가구주 교육수준과 교육비 지출과의 관계는 가계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가령 교육비 지출액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득이 상인 집단의 지출액이 높으나 가구주가 전문대졸인 경우에는 소득이 중집단인 가계의 지출액보다 적고 교육비 지출비율도 가장 낮다. 그러나 개인교습비의 경우 소득이 하집단인 경우에도 가구주가 전문대졸인 가계의 지출액이 가장 높다. 소득이 상집단인 경우 가구주가 고졸이거나 전문대졸인 가계는 월평균 80만원 이상을 개인교습비에 지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가구주가 대졸인 경우에는 교육비와 사교육비 지출은 높으나 상대적으로 개인교습비에는 덜 지출하고 있다.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을 때조차도 전문대졸 가구주 가계는 교육비 중에서도 사교육비, 사교육비 중에서도 개인교습비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가 대졸 이상인 소득 상집단은 전체 교육비 지출액의 72%를 사교육에 투자하고 있어 가장 사교육 지향적인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 교육비 지출지표에 대한 가계소득과 자녀수, 취업일수, 가구주 교육수준과 배우자 교육수준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가구주 교육수준은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사교육비 지출액과 사교육비 지출비율, 그리고 개인교습비 지출비율과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 교육비 지출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이 동일할 때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주로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을 통해 교육비에 영향을 준다. 이는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로 확대되고, 부모의 교육수준과

무관하게 전문대학과 대학 진학률이 거의 80% 이상으로 높아져 공교육비에 있어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차이가 줄어들어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투자는 단순히 학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학벌(사회적으로 인지되는 학교 랭킹)을 높이기 위한 투자이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한 전인적 교육보다는 입시나 보습학원, 개인교습 등 자녀의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룬다.

둘째, 계층별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대학진학을 위한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인적자본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하고 사회에서의 취업과 승진, 결혼,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방면에서 피교육자의 능력이 선택의 척도가 되게 해야 한다. 선택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능력보다는 부모의 후광으로 인한 '연고지 등용'의 효과가 커지고 공교육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공교육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불신이 클수록 사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회적 권익이 대물림될 가능성이 크다.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가구주가 대졸 이상인 경우 전체 교육비 지출의 72%가 사교육비에 투자되고 있는데 이는 사교육을 통해서라도 학벌을 높일 수 있다면 자녀들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연고, 정보망을 이용해 쉽게 사회의 상층부로 진입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교육비 지출의 절대액은 적으나 교육비 지출부담은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이 2,8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집단의 경우 가구주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이면 교육비 지출이 총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3%까지 상승한다. 사교육 중에서도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득계층보다 개인교습비 지출부담이 높다. 교육비 지출에 대한 지나친 부담은 다른 필수적인 지출을 축소시키고 나아가 전반적인 생활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특히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졸이나 소득은 하집단인 경우, 즉 어느 정도의 교육은 받았으나 본인이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경우, 사교육에 대한 집착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소득 집단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교육기회 확대 외에 교육비 지출에 대한 세제감면 등 저소득층의 교육투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접수일 : 2007년 09월 15일
- 심사일 : 2007년 10월 09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12월 13일

【참 고 문 헌】

- 강인원·전성일(2003). 학벌주의가 학부모들의 인식수준과 사교육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 연구*, **14(1)**, 141-158.
- 강지연(2002). *학부모의 교육의식과 자녀 조기유학 선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교육부(2001). *2000년도 사교육비 실태조사결과*.
- 김경자(2005). 자녀의 성별에 따른 교육투자. *한국 소비자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 김부태(1997). *한국학력사회론*. 내일을 여는 책.
- 김시월(1999).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과 경제적 복지감과의 관련성 연구. *소비자학 연구*, **10(3)**, 101-121.
- 김진영·김홍균(2001). 한국에서의 가계특성과 교육의 투자수익률. *공공경제*, **6(1)**, 22-31.
- 김지경(2004).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소비자학 연구*, **15(3)**, 67-86.
- 김홍균·문용호(2006). 부모 및 부인의 교육수준과 교육투자수익률. *재정논집*, **21(1)**, 1-22.
-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71-184.
- 박미희·여정성(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유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89-206.
- 양세정·이운금(1997).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자녀수와 자녀성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8(2)**, 81-101.
- 이미정(1998). 가족 내에서의 성차별적 교육투자. *한국사회학*, **32(1)**, 63-97.
- 이성림(2002).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대한가정학회지*, **40(9)**, 143-159.
- 이성림(2005).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63-76.
- 이승신(2003).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40(7)**, 211-227.
- 임연기·김영화(1997). *한국인의 교육의식*.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학사.
- 정영숙(1996). 개인의 인적자본 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소비자학 연구*, **17(4)**, 1-13.
- 정영숙(1999). 사교육비 지출이 소비패턴의 내재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 연구*, **20(4)**, 61-73.
- 주문자·황덕순(2005). 사교육비 지출행동에서 비인지요인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 연구*, **16(2)**, 147-168.
- Becker(1972). *Treatise on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Press.
- Blake, J.(1989). *Family size and Achieve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incer, J. (1958).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6**, 281-302.
- OECD(2004). *Education at Glance at 2004*.
- Schultz, T. W.(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51**, 1-17.